

Le service de presse, 13 septembre 2016

REVUE DE PRESSE

Visite en Corée du Groupe d'amitié France-Corée du Sénat (6-12 septembre 2016)

Gukje News (08/09/16)

**Titre : M. Chung Sye-kyun, Président de l'Assemblée nationale, a reçu M. Alain Gournac, Président du groupe d'amitié France-Corée du Sénat**

**정세균 의장, 알랭 구르낙 한국-프랑스 의원친선협회장 접견**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정세균 의장은 9 월 7 일(수) 오전 11 시 20 분 의장접견실에서 알랭 구르낙(Alain GOURNAC)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장의 예방을 받았다.

정 의장은 “제가 19 대국회에는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 회장이었다”고 프랑스와의 인연을 소개한 뒤 “올해 한-프랑스 수교 130 주년을 맞이하여 프랑스에서 개최된 한식주간 행사 등 한국과 관련된 행사를 성대하게 준비해주어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에 구르낙 의원친선협회장은 “한국이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양국간 상호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애 증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프랑스는 ‘한-프랑스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의 전통문화를 더욱 널리 알리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M. Gournac a déclaré : « La Corée étant devenue une puissance économique mondiale, il faut faire davantage d'efforts pour renforcer l'amitié entre les deux pays, à travers l'animation des échanges bilatéraux. A l'occasion de l'Année France-Corée, la France fait des efforts pour mieux faire connaître la culture coréenne. »

구르낙 의원친선협회장은 이어 "프랑스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한 뒤 "글로벌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한국 국회에서도 비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M. Gournac a ajouté : « A propos des problèmes concernant la péninsule coréenne, la France soutient entièrement la position sud-coréenne. Et je souhaite que l'accord de Paris décidé dans le cadre des efforts de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pour réagir efficacement au changement climatique global soit également ratifié par l'Assemblée nationale coréenne. »

정 의장은 "최근 한국이 처한 어려운 외교적 상황에서 프랑스가 보여준 강력한 지지에 감사드린다"고 말한 뒤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프랑스가 국제사회에서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의 결과"라면서 "9 월 1 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심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지난 해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에 대해 위로를 전하며,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프랑스 국민들의 성숙된 모습에 존경심이 들었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반인륜적인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우리 측에서는 박영선 의원, 김영주 의원, 서영교 의원,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김교흥 의장비서실장, 김영수 국회대변인, 김일권 국제국장, 이백순 외교특임대사 등이 참석했고, 프랑스 측에서는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주한프랑스대사, 필립 칼텐바흐(Philippe KALTENBACH) 프-한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엘리자베스 라뮤르(Elisabeth LAMURE) 프-한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로이크 에르베(Loïc HERVE) 프-한 의원친선협회 간사 등이 함께 했다.

**Titre : M. Chung Sye-kyun a reçu M. Alain Gournac, Président du groupe d'amitié France/Corée du Sénat**

**정세균 국회의장, 알랭 구르낙 한국-프랑스 의원친선협회장 접견**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정세균 의장은 7 일 알랭 구르낙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장의 예방을 받았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구르낙 의원친선협회회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제가 19 대국회에는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 회장이었다”며 “올해 한-프랑스 수교 130 주년을 맞이하여 프랑스에서 개최된 한식주간 행사 등 한국과 관련된 행사를 성대하게 준비해주어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이에 구르낙 의원친선협회장은 “한국이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양국간 상호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애 증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프랑스는 ‘한-프랑스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의 전통문화를 더욱 널리 알리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M. Gournac a déclaré : « La Corée étant devenue une puissance économique mondiale, il faut faire davantage d'efforts pour renforcer l'amitié entre les deux pays, à travers l'animation des échanges bilatéraux. A l'occasion de l'Année France-Corée, la France fait des efforts pour mieux faire connaître la culture traditionnelle coréenne. »

구르낙 의원친선협회장은 이어 “프랑스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한 뒤 “글로벌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한국 국회에서도 비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M. Gournac a ajouté : « A propos des problèmes concernant la péninsule coréenne, la France soutient entièrement la position sud-coréenne. Je souhaite que l'accord de Paris décidé dans le cadre des efforts de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pour réagir efficacement au changement climatique global soit également ratifié par l'Assemblée nationale coréenne. »

이에 정 의장은 “최근 한국이 처한 어려운 외교적 상황에서 프랑스가 보여준 강력한 지지에 감사드린다”면서 “파리협정은 프랑스가 국제사회에서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의 결과이며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심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장은 이어 “지난 해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에 대해 위로를 전하며,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프랑스 국민들의 성숙된 모습에 존경심이 들었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반인륜적인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접견에는 우리 측에서는 박영선·김영주·서영교 의원과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김교흥 의장비서실장, 김영수 국회대변인, 김일권 국제국장, 이백순 외교특임대사 등이 참석했다.

프랑스 측에서는 파비앙 페논 주한프랑스대사와 필립 칼텐바흐 프-한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엘리자베스 라뮤르 프-한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로이크 에르베 프-한 의원친선협회 간사 등이 함께 했다.

#### Daejeon MBC (TV) (08/09/16)



**Titre : M. Jeon Chang-gon, directeur de l'Alliance française de Daejeon, nommé Chevalier de l'ordre des arts et des lettres**

한불 수교 130 주년을 맞아 프랑스 상원의원단 일행이 대전 프랑스문화원을 방문해 두 나라의 문화교류 증진에 노력한 전창곤 원장에게 프랑스 정부의 문화훈장을 전수했습니다.

#### Veritas-a (09/09/16)

**Titre : Le lycée des langues étrangères de Daejeon a discuté de coopération avec le groupe d'amitié France-Corée du Sénat**

**대전외고, 프랑스 상원의원단과 협력관계 '맞손'**

프랑스어 교육 활성화 협의



대전외고는 8 일 프랑스 상원 한불친선협회 소속 의원단 일행이 대전외고를 방문해 협력관계를 모색했다고 9 일 밝혔다.

프랑스 상원의원단은 알랭 구르낙(Alain GOURNAC)을 비롯해 필립 칼텐바크(Philippe KALTENBACH), 엘리자벳 라뮈르(Élisabeth LAMURE), 로익 에르베(Loïc HERVÉ) 등 한불친선협회 소속 의원들이 방문했다.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주한 프랑스 대사와 문화참사관, 주한 프랑스 문화원장 등 대사관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대전외고는 작년 3 월부터 주한프랑스문화원과 상호간 교육문화 교류 협정을 맺어 학생 2 명에게 4 주간 프랑스 어학연수비와 왕복항공료를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의 마장디고와 학생 상호방문 활동 등의 교육적인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있다.



▲ 대전외고가 프랑스 상원 한불친선협회 소속 의원단 프랑스어 교육 등에 대해 협력관계를 모색했다. /사진=대전교육청 제공

의원단 일행은 상원의원의 역할, 한불친선협회의 기능, 세계화 시대에 프랑스어를 배우는 이점, 프랑스 특유의 창의성 발달 교육 방법 등에 관한 학생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프랑스어과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구르낙 의원은 “한불 수교 130 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프랑스어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프랑스어 교육, 문화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 Gournac a dit : « A l’occasion du 130<sup>e</sup> anniversaire des relations diplomatiques entre France et la Corée, je souhaite le développement de l’enseignement du français en Corée. Nous allons activement développer les échanges et les coopérations dans le domaine de l’enseignement du français et dans le domaine culturel. »

**Titre : Un groupe de Sénateurs français a visité le lycée des langues étrangères de Daejeon.**  
**Depuis le mois de mars 2015, les frais d'un séjour linguistique de 4 semaines et les billets d'avion aller-retour sont offerts à deux étudiants par l'Institut Français en Corée.**

프랑스 상원의원단의 대전외고 방문

2015 년 3 월부터 주한프랑스문화원 학생 2 명의 4 주간 프랑스 어학연수비 및 왕복항공료 지원 혜택



대전외국어고등학교(교장 이상호)은 지난 9 월 8 일(목) 프랑스 상원 한불친선협회 소속 의원단과 주한 프랑스 대사 등 11 명의 일행이 대전외고를 방문,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 날 방문한 상원의원단은 알랭 구르낙(Alain GOURNAC)을 비롯하여 필립 칼텐바크(Philippe KALTENBACH), 엘리자벳 라뮈르(Élisabeth LAMURE), 로익 에르베(Loïc HERVÉ) 등 4 명의 의원으로 한불친선협회 소속 의원들이다. 이번 방문에는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주한 프랑스 대사와 문화참사관, 주한 프랑스 문화원장 등 대사관 관계자들이 함께 하였다.

교장실 면담에서 구르낙 의원은 한불 수교 130 주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더욱 더 한국에서 프랑스어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프랑스어 교육·문화 분야에서 대전외국어고등학교의 활약을 당부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Lors d'un entretien avec le directeur du lycée, M. Gournac a souhaité le développement de l'enseignement du français en Corée, à l'occasion du 130<sup>e</sup> anniversaire des relations diplomatiques entre la France et la Corée. Il a encouragé les activités du lycée dans le domaine de l'enseignement du français et dans le domaine culturel pour favoriser activement des échanges et des coopérations.

또한, 의원단 일행은 상원의원의 역할 및 한불친선협회의 기능, 세계화 시대에 프랑스어를 배우는 이점, 프랑스 특유의 창의성 발달 교육 방법 등에 관한 학생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프랑스어과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다.

대전외국어고등학교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주한프랑스문화원과 상호간 교육·문화 교류 협정을 맺어 학생 2명의 4주간 프랑스 어학연수비 및 왕복항공료 지원 혜택을 주고 있으며, 프랑스의 마장디고등학교(보르도 소재)와 학생 상호방문 활동 등의 교육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New Daily (09/09/16)**

**Titre : Un groupe de Sénateurs français a visité le lycée des langues étrangères de Daejeon**

**대전외국어고에 프랑스 상원의원단이 떴다**



프랑스 상원 한불친선협회 소속 의원단 일행과 주한 프랑스 대사 등 11 명이 8 일 대전외국어고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상원의원단은 알랭 구르낙(Alain GOURNAC)을 비롯 필립 칼텐바크(Philippe KALTENBACH), 엘리자벳 라뮈르(Élisabeth LAMURE), 로익 에르베(Loïc HERVÉ) 등 4 명의 의원으로 한불친선협회 소속 의원들이다.

이번 방문에는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주한 프랑스 대사와 문화참사관, 주한 프랑스 문화원장 등 대사관 관계자들도 함께 해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모색했다.

교장실 면담에서 구르낙 의원은 “한불 수교 130 주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더욱 더 한국에서 프랑스어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프랑스어 교육·문화 분야에서 대전외국어고의 활약을 당부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Lors d'un entretien avec le directeur du lycée, M. Gournac a souhaité le développement de l'enseignement du français en Corée, à l'occasion du 130<sup>e</sup> anniversaire des relations diplomatiques entre la France et la Corée. Il a encouragé les activités du lycée dans le domaine de l'enseignement du français et dans le domaine culturel pour favoriser activement des échanges et des coopérations.

또한 의원단 일행은 상원의원의 역할 및 한불친선협회의 기능, 세계화 시대에 프랑스어를 배우는 이점, 프랑스 특유의 창의성 발달 교육방법 등에 관한 학생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프랑스어과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한편 대전외국어고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주한프랑스문화원과 상호간 교육·문화 교류 협정하고 학생 2명의 4주간 프랑스 어학연수비 및 왕복항공료 지원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프랑스의 마장디고등학교(보르도 소재)와 학생 상호방문 활동 등의 교육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해 오고 있다.

#### Asia News Agency (09/09/16)

**Titre : Un groupe de Sénateurs français s'est rendu au lycée de langues étrangères de Daejeon.**

대전외고, 프랑스 상원의원단 방문



8일 프랑스 상원 한불친선협회 소속 의원단과 주한 프랑스 대사 등 11명의 일행이 대전외국어고등학교를 방문했다.(사진제공=대전시교육청)



대전외국어고등학교(교장 이상호)는 프랑스 상원 한불친선협회 소속 의원단과 주한 프랑스 대사 등 11 명의 일행이 대전외고를 방문,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모색했다고 9 일 밝혔다.

이날 방문한 상원의원단은 알랭 구르낙(Alain GOURNAC)을 비롯해 필립 칼텐바크(Philippe KALTENBACH), 엘리자벳 라뮈르(Élisabeth LAMURE), 로익 에르베(Loïc HERVÉ) 등 4 명의 의원으로 한불친선협회 소속 의원들이다.

이번 방문에는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주한 프랑스 대사와 문화참사관, 주한 프랑스 문화원장 등 대사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교장실 면담에서 구르낙 의원은 "한불 수교 130 주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더욱 더 한국에서 프랑스어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프랑스어 교육·문화 분야에서 대전외고의 활약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Lors d'un entretien avec le directeur du lycée, M. Gournac a souhaité le développement de l'enseignement du français en Corée, à l'occasion du 130<sup>e</sup> anniversaire des relations diplomatiques entre la France et la Corée. Il a encouragé les activités du lycée dans le domaine de l'enseignement du français et dans le domaine culturel pour favoriser activement des échanges et des coopérations.

또한 의원단 일행은 상원의원의 역할 및 한불친선협회의 기능, 세계화 시대에 프랑스어를 배우는 이점, 프랑스 특유의 창의성 발달 교육 방법 등에 관한 학생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프랑스어과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한편 대전외고는 2015 년 3 월부터 주한프랑스문화원과 상호간 교육·문화 교류 협정을 맺어 학생 2 명의 4 주간 프랑스 어학연수비 및 왕복항공료 지원 혜택을 주고 있으며 프랑스의 마장디고등학교(보르도 소재)와 학생 상호방문 활동 등의 교육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GeumGang Ilbo (09/09/16)**

**Titre : Un groupe de Sénateurs français a visité le lycée de langues étrangères de Daejeon.**

프랑스 상원의원단의 대전외고 방문



▲ 지난 8 일 대전외고를 방문한 프랑스 상원 의원단과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외고 제공

대전외국어고등학교(교장 이상호)는 지난 8 일 프랑스 상원 한불친선협회 소속 의원단과 주한 프랑스 대사 일행 11 명이 학교를 방문,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모색했다고 11 일 밝혔다.

이날 방문한 상원의원단은 알랭 구르낙(Alain GOURNAC)을 비롯, 필립 칼텐바크), 엘리자벳 라무르, 로익 에르베 등 4 명으로 한불친선협회 소속 의원들이다. 이번 방문에는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주한 프랑스 대사와 문화참사관, 주한 프랑스 문화원장 등 대사관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알랭 구르낙 의원은 "한불 수교 130 주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더욱 더 한국에서 프랑스어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프랑스어 교육·문화 분야에서 대전외고의 활약을 당부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의원단 일행은 상원의원의 역할 및 한불친선협회 기능, 세계화 시대에 프랑스어를 배우는 이점, 프랑스 특유의 창의성 발달 교육 방법 등에 관한 학생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프랑스어과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Lors d'un entretien avec le directeur du lycée, M. Gournac a souhaité le développement de l'enseignement du français en Corée, à l'occasion du 130<sup>e</sup> anniversaire des relations diplomatiques entre la France et la Corée. Il a encouragé les activités du lycée dans le domaine de l'enseignement du français et dans le domaine culturel pour favoriser activement des échanges et des coopérations.

Hello DD(08/09/16)

**Titre : M. Penone, ambassadeur de France : « Nous élargissons la coopération entre des intellectuels scientifiques et de sciences humaines des deux pays. »**

**Le groupe d'amitié France-Corée du Sénat a visité le 8 septembre le KAIST et le KARI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Discussion sur les échanges d'étudiants et le développement de la coopération spatiale.**

**페논 프랑스 대사 "대덕과 과학·인문 지식인 상생 판 키운다"**

8 일 KAIST·항우연 등 방문...유학생 교류·우주개발 등 협력방안 논의



한불친선의원연맹회와 주한 프랑스 대사 등 상원 의원단이 대전을 찾아 지역 사람들과 오찬을 즐기고 있다.<사진=박성민 기자>

"대덕은 과학·문화·경제·인문 등 지식인 공동체가 상생 호흡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다. 한국과 프랑스 간 기관·학교 등 협력도 중요하지만, 양국 지식인 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알랭 구르낙(Alain GOURNAC) 한불친선의원연맹회장과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주한 프랑스 대사 등 상원 의원단은 8 일 KAIST 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을 잇따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 고위급 인사들의 대전 방문은 지난 7 월 이후 두 달 만이다. 당시 대전 대덕 과학을 중심으로 양국 협력 과제를 논의키로 협의한 바 있다. 한불친선의원연맹회 상원 의원단 대전 방문은 15 년 만이다.



상원 의원단이 KAIST 에 방문해 양국 유학생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박성민 기자>

KAIST 에 방문한 프랑스 상원 의원단은 양국 유학생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상원 의원단은 KAIST 설립이념과 연혁, 중장기 발전계획, 주요연구 성과, 공동 인재육성 방안 등을 소개받았다.

박승빈 KAIST 부총장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김도연 포스텍 총장 등 한국 과학계 다양한 핵심 인물들도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온 바 있다"며 "향후 과학기술계 유학생 교류협력을 통해 양국의 유능한 과학계 인물을 배출하자"고 말했다.

그는 "KAIST 가 프랑스 21 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며 "유학생 인재 교류협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문화·교육·인문·공동연구 등 분야로 협력 가능성을 넓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랭 구르낙 회장은 다음달 15 일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불 대학 과학 이노베이션 컨퍼런스' 협력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이미 유학을 했거나, 유학 중인 인물들을 초대할 예정"이라며 "KAIST 의 프랑스 유학생이 참여해 양국이 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살롱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M. Alain Gournac a mentionné le développement de la coopération bilatérale au travers des Rencontres franco-coréennes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qui se tiendront les 15 et 16 octobre à Séoul. Il a par ailleurs dit : « Nous invitons des Coréens ayant étudié en France ou qui font des études en France. Je vous propose de créer un salon étudiant où les deux pays peuvent communiquer sans barrière, avec la participation d'étudiants français au KAIST. »

이어 찾은 항우연에서 양국 우주개발 교류협력 체계를 논의했다. 파비앙 페논에 따르면 오는 12 월 13 일 서울에서 '한·불 우주개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페논은 "항우연 주요 인사를 비롯해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주요 인사가 모두 참여하는 행사"라며 "양국 우주개발 장점을 바탕으로 공동 협력하거나 기술개발·업무협약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오후에 찾은 대전프랑스문화원(원장 전창곤) 본원에서는 '한불수교 130 년 기념' 문화훈장 서훈식을 가졌다. 프랑스 상원 의원단이 전창곤 원장에게 문화훈장을 전달했다.



대전프랑스문화원은 프랑스 문화를 알리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프랑스 정부의 후원을 받는 비영리협회-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 Française)에 의해 만들어졌다.

페논 대사는 "내년에는 한국에 '프랑스의 날'이 생긴다. 양국이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며 "과학·문화·경제·행사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국이 서로 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알랭 구르낙 회장은 "한국 수도인 서울과도 협력이 중요하겠지만, 과학 수도라 불리는 대전에서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양국의 우호적인 발전 뿐만 아니라 프랑스인이 한국인을 알고, 한국인이 프랑스인을 알아갈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M. Alain Gournac a déclaré lors de sa visite à l'Alliance française de Daejeon : « La coopération avec Séoul, capitale de la Corée, est importante. Mais la coopération avec Daejeon, capitale scientifique, est plus importante. Nous accroissons la coopération bilatérale non seulement pour le développement de l'amitié entre les deux pays, mais également pour que les Français connaissent les Coréens et vice versa. »



방문단이 KAIST 기술인 doctor M 홍보관을 방문해 모바일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기술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박성민 기자>

**Edaily (08/09/16)**



[포토] 정세균 의장, 알랭 구르낙(Alain GOURNAC) 한국-...



[포토] 정세균 의장, 알랭 구르낙(Alain GOURNAC) 한국-...



[포토] 정세균 의장, 알랭 구르낙(Alain GOURNAC) 한국-...

**Focus News 08/09/16)**



정세균 국회의장,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장 접견



정세균 의장,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장 일행 접견



정세균 의장, 한-프랑스 의원친선협회장 접견